

	<b>독 일 ( 프 랑 크 푸 르 트 ) 사 무 소</b> <b>해 외 동 향 보 고 서</b>	작성팀	마케팅지원팀
		담당자	정훈희 소장
		일 시	2024.12.

### CEPA Insight

- 유럽 연합의 기업 대상 지속가능성 책임과 요구는 더욱 명확하고 강력해지고 있는 만큼 제품 설계 단계부터 규제 요건을 감안하여 대응 필요

## 1 EU JRC, 에코디자인 규정에 따른 첫 번째 제품군 선정

-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제(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, ESPR) 프레임워크는 '24. 7월 발효되었으며 디지털 제품 여권(digital product passports, DPP)과 제품 및 재료의 순환성을 저해하는 유해한 물질을 제한하는 조치를 포함
  - ESPR은 EU 역내 출시되거나 서비스에 사용되는 부품과 중간재를 포함한 모든 물리적 품목과 디지털 콘텐츠에 단계적으로 적용
  - 다만 식품, 의약품, 자동차처럼 다른 법률로 규제되거나 국방·안보 관련 제품, 우주산업 제품 등 특수 목적을 가진 제품은 제외
- EU 집행위원회의 공동 연구 센터(Joint Research Centre, JRC)는 환경적 영향, 개선 가능성, 시장 중요성, EU 정책 적용 범위, 비용 등 여러 변수를 고려, 우선적으로 잠재 조치를 취할 수 있 18개 제품군을 선정

### ESPR 우선 조치 대상 품목

①섬유 및 신발 ②가구 ③타이어 ④침대 매트리스 ⑤세제 ⑥페인트 및 광택제  
 ⑦윤활유 ⑧화장품 ⑨장난감 ⑩낚시 도구 ⑪흡수성 위생 용품 ⑫중간 제품  
 ⑬철강 ⑭상품 화학물질 ⑮비철, 비알루미늄 금속 제품 ⑯플라스틱 및 폴리머  
 ⑰펄프 및 종이 ⑱유리 ※ 최고 점수부터 최저 점수순

- 에코디자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제품의 △제조업체는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하거나 제3기관에 위탁하고, △수입업체는 적합성 평가 여부와 CE 마크 및 관련 문서를 확인해야 함 △이 밖에 공인 대리인, 유통, 중개, 보관, 포장, 배송 등 서비스 제공업체(FSP)도 규정 준수 의무
  - 또한 제품의 환경적 영향을 줄이고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 운영자에게 에코디자인 요건 준수와 관련 정보공개 의무 부여

※ 출처 : EU Joint Research Center (<https://publications.jrc.ec.europa.eu/repository/handle/JRC138903>)

## ② 독일 경제계, 트럼프의 미대통령직 당선에 우려 표명

- 킬 세계경제연구소(IfW Kiel)는 트럼프 선거 승리는 독일연방공화국 사상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
  - 앞으로 미국은 개방적이고 글로벌한 협력에서 더 멀어질 것이며, 독일과 EU는 이제 여러 조치를 통해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경고
- 독일 경제연구소(IFO)는 관세만으로 독일에 330억 유로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대미 수출이 약 15%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
  - ※ 트럼프 공약 : 수입관세 최소 10%, 무역제한, 미국기업 세금 감면
- 유럽경제연구센터(ZEW) 또한 역동적인 내수시장만이 미국과 중국의 경제블록 사이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을 보장한다고 강조하고, 트럼프는 유럽 기업들이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경고
- 독일경제연구소(DIW)의 경우 미국의 무역 보호주의로 독일과 유럽 내 인플레이션 상승, 구매력 감소, 일자리 상실이 우려된다고 언급

※ 출처 : Spiegel (<https://www.spiegel.de/wirtschaft/us-wahl-2024-so-reagiert-die-deutsche-wirtschaft-auf-den-sieg-von-donald-trump-a-776993b0-de14-4345-a74a-2d7de2d7093f>)

## ③ 독일의 혁신력에 대한 우려 제기

- 독일경제연구소(IW)의 MINT (Mathematik 수학, Informatik 컴퓨터 공학, Naturwissenschaft 순수과학, Technik 기술) 가을보고서에 따르면, 독일은 '20년 이후 연구개발 지출을 크게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력 지표에서 10개국 중 6위를 기록하는 등 우려스러운 추세를 보이고 있음.
  - 연구개발비 지출은 스위스, 스웨덴, 일본, 한국에서 증가율이 더 높음
  - 특히, 독일의 국제특허 출원 비율은 '2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한 반면, 중국과 한국 등이 큰 진전을 보여 독일을 거의 따라잡음
- 동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숙련인력 부족으로, 지난해 및 올해 심각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약 19만명의 MINT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.

※ 출처 : Tagesschau (<https://www.tagesschau.de/wirtschaft/arbeitsmarkt/mint-herbstreport-102.html>)

#### ④ 독일 자동차 산업 위기로 대규모 구조조정, 경기침체 심화 전망

- **(폭스바겐)** 7년 만에 독일 공장 3곳 폐쇄·임금 10% 삭감 예정
  - 11. 21. 단체교섭에서 노조는 임원보너스·배당금 축소, 공장 폐쇄 철회 조건으로 15억 유로 임금 인상분을 양보했으나 협상 결렬로 12월 초 파업 예고(다음 교섭일 12. 9.)
- **(포드)** '27년까지 유럽 전체 인력 14%(약 4천명) 감축 계획
  - 행정직과 가솔린 엔진 생산 부문에서 감축, 유럽 전기차 전환 압박에 대비하고 중국산 전기차 경쟁을 위해 수익성 있는 모델에 집중할 전략
  - 독일 쉘른 공장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전기차 모델 생산량 축소 예정
- **(보쉬)** 신기술 투자와 비용절감 위해 5,500명 감축 예고
  - AI·자율주행 수요 약세로 '27~30년 차량용 컴퓨팅 사업부 3,500명, 자동차·트럭 스티어링 사업부 1,300명 감원 예정

※ 출처 : Rote Fahne (<https://www.rf-news.de/2024/kw47/auto-krise-vw-ford-zf-bosch-gemeinsamer-kampf-um-jeden-arbeitsplatz>)

#### ⑤ 독일 제조업 기업 1/3 해외 이전 계획

- 독일 컨설팅 회사 EY가 독일 제조업 기업 115개 경영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일의 산업 입지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독일 제조업 기업의 약 3분의 1이 해외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반면, 독일로 일자리를 가져오려는 기업은 4%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.
  - 설문 응답자의 84%는 현재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70%는 복잡한 행정절차 및 규제를, 57%는 숙련 인력 부족을 가장 큰 경제 성장의 장애 요소로 꼽음

※ 출처 : Tagesspiegel (<https://www.tagesspiegel.de/wirtschaft/ey-studie-sieht-standortschwache-in-deutschland-ein-drittel-der-industriefirmen-plant-jobverlagerung-ins-ausland-12629951.html>)

#### ⑥ 기타 (유관기관 개소 동향)

- **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(aT) 프랑크푸르트지사**
  - 11. 11, 프랑크푸르트 / 임희영 지사장(+49-69-3660-6674-1)
  - 유럽 내 22개국 관장, 한국 농식품의 유럽 시장 진출 마케팅 활동